

## 글로벌 리더 역량 갖추고 변화 주도하라

### 간협-국제간호협의회 공동주관 ... '변화를 위한 리더십(LFC)' 교육

대한간호협회가 운영하는 KICN 간호리더십센터(KNA-ICN Center of Excellence for Nursing Leadership)에서 첫 번째 리더십 교육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대한간호협회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지역 간호사들의 글로벌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센터를 설립했다.

센터 현관식은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가 끝난 직후인 2015년 6월 23일 당시 국제간호협의회(ICN) 회장과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현관은 대한간호협회 회관 1층에 걸렸다.

센터에서 이번에 실시한 교육은 ICN이 직접 개발해 운영하고 있는 '변화를 위한 리더십(Leadership for Change)' 프로그램이다.

간호사들의 리더십 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1기 ICN Leadership for Change(LFC)' 프로그램은 1년 과정으로 운영된다.

1차 워크숍이 7월 10~14일 실시됐다. 간호대학 교수와 간호사들이 참여했으며, 신성혜 ICN 제3부회장이 교육생으로 함께 했다.

워크숍 진행은 LFC 프로그램 전담강사인 크리스틴 쿠레시(Kristine Qureshi) 하와이대 간호학과 교수가 맡았다.

앞으로 2차 워크숍은 2018년 1월 8~12일, 3차 워크숍은 2018년 7월 9~13일 열릴 예정이다. 워크숍을 모두 이수한 사람에게는 이수증과 함께 ICN LFC 핀이 수여된다.

대한간호협회에서는 2년 및



대한간호협회가 운영하는 KICN 간호리더십센터에서 '제1기 ICN LFC(변화를 위한 리더십)'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프로그램 참석자들이 함께 자리했다.

### 1년 과정으로 진행 ... 이수자에게 LFC 핀 수여

#### 워크숍 세차례 열려 - 팀별 프로젝트 수행

3년 이상 회원등록한 사람에 대해 등록비 일부를 지원한다.

이번 1차 워크숍에서는 글로벌 보건의료 이슈 및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조직 문화와 풍토, 건강한 근무환경 만들기 등에 대해 살펴봤다. 리더십과 관리의 차이점, 강한 리더와 성공하는 리더의 특성, 감성지능(EQ), 커뮤니케이션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팀별 프로젝트로 간호실무·관리·교육 등에서 개선해보고 싶은 주제를 선정해 실행계획을 세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은 리더십 자가평가, 그룹활동·역할극 등 다양한 액티비티, '테드(TED) 토크' 등 역동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1차 워크숍 개최식에서는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이 인사말을 했으며, 아네트 케네디 국제간호협의회(ICN) 회장이 영상 축하메시지를 보내왔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은 "대한간호협회와 ICN이 공동주관

하는 LFC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우선 한국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앞으로 아시아권 간호사들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3차 워크숍까지 성공적으로 마친 후 여러분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능동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네트 케네디 ICN 회장은 "한국에서 LFC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며, 대한간호협회에서 잘 운영해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참석자 여러분 모두 프로그램을 즐기고, 미래를 향해 더욱 발전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간호사 없이 보건의료계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는 없으며, 간호사들은 자신감을 갖고 정책제언에 있어 정책결정과정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규숙·주혜진 기자

## 공공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의무화 성공대책 논의 간호부서장 국회 간담회

### 인재근·김상희·기동민 의원 주최 ... 간협 주관

공공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의무화 대책 토론회 개최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공공병원 간호부서장들이 고충을 털어놓고 개선방안을 건의하는 간담회가 7월 12일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국회의원, 김상희 국회의원, 기동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공공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돼 있다.

이날 인사말을 한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은 "전국에서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간호부서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면서 "공공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성공하기

위해선 우선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가 해결돼야 하며, 근본적으로 처우와 근무환경이 개선돼야 간호사 풀림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간호부서장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와 보호자들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다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성공시켜야 한다"면서 "하지만 공공병원에게 의무만 주어지고 실제로 일을 할 간호사에 대한 지원, 시설과 장비에 대한 투자에는 무관심하고 인색한 현실"이라고 입을 모았다.

우선,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위해선 임금을 현실화시키고 표준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성패가 간호사 확보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간호사 수급 상황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병원부터 참여할 임무를 못 내고 있는 곳까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부서장들은 "임금이 낮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병원에서 일하고 싶은 간호사를 구하기 어려운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지속적으로 근무하도록 유지시키는 건 더 어렵다"면서 "부족한 인력으로 밀어붙이고 끝어 나가다보니 약력 관리자가 되는 것 같아 쓸쓸하다"고 토로했다.

둘째,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병원 시설과 장비에



## 간호사 임금 개선 표준화 시급 환자안전 시설·장비에 투자해야

투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호부서장들은 "노인환자의 비율이 높은 만큼 낙상 등 안전사고 대책과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이 확실하게 마련돼야 간호사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다"면서 "전동침대, 낙상방지센서 등 기본적인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셋째,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올바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간호부서장들은 "간호사 1명이 환자 1명만 전담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환자나 보호자가 많고, 간병서비스를 넘어서 개인

심부름을 요구하는 등 인식 수준이 천차만별"이라며 "국민들에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주는 홍보활동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제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병원

의 특성상 저소득층, 도시 빈민층, 취약계층 환자가 많은 만큼 이들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건강권에 격차와 쏠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남자간호사가 공중보건 의료인으로 근무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및 논쟁법 개정안이 발의돼 고무적"이라며 "법 개정안이 꼭 통과돼 공공병원의 간호사 수급에 숨통이 트이길 기대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공청회를 주최한 의원실 보좌관들은 "오늘 수렴된 의견들이 토론회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면서 "대한간호협회를 중심으로 공공병원 간호부서장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활동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 환자가 직접 의료서비스 평가한다

### '환자경험조사' 시작 ... 간호사 서비스 등 24개 문항

환자가 직접 의료서비스 평가에 참여하는 환자경험조사가 7월 17일부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급종합병원 및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총 95곳의 퇴원환자 2개월 이내 환자 약 15만명을 대상으로 입원기간 동안 환자가 경험한 의료서비스를 확인하는 '환자경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환자의 의료경험을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화 설문조사 방식으로 3~4개월 간 진행된다. 응답률은 10%로 가정을 1만5250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사항목은 △간호사 서비스 △의사 서비스 △투약 및 치료과정 △병원환경 △환자관리보장 △전반적 평가 △개인특성 등 7개 항

목 24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간호사 서비스에서는 환자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줬는지, 병원생활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줬는지, 환자의 요구처리를 위해 노력했는지 등에 대해 물어본다.

국민이 안심하고 조사를 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응답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한다.

환자경험조사는 국민이 병원에서 경험한 의료서비스 수준을 확인해 국민이 느끼는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가 진료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환자 중심의 의료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선진국에서는 환자가 체감하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2000년대 초부터 꾸준히 환자경험을 조사하고 있다. 환자의 긍정적인 경험과 환자중심 의료는 임상적 효과와 환자안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외국의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환자경험조사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가 의료현장에 반영되고 평가결과를 병원과 공유함으로써, 국민과 의료진이 함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중심 의료문화를 만들어 나갈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oo@

### 1. 모집인원 및 자격

구분	모집인원	응시자격
신규간호사	000명	2018년 2월 졸업예정자

### 2. 전형방법

서류전형 → 실무진 면접전형 → 경영진 면접전형  
▶ 전형방법 및 일정은 병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 지원서 교부

병원 홈페이지(www.dumc.or.kr) 일산병원 채용공고란

### 4. 접수장소 및 기간

가. 접수장소 : 1032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운영지원팀(4층)  
나. 접수기간 : 2017. 8. 11(금) ~ 8. 18(금) 17:00  
다. 접수방법 : 인터넷에 등록된 서류 출력 후 아래의 제출서류 동봉 제출, 방문 또는 우편접수  
라. 접수문의 : 운영지원팀 031-961-9303

### 5. 제출서류

가. 지원서, 자기소개서 각 1부  
나. 최종학교 졸업 예정 증명서, 성적증명서(석차기제 必)  
다.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남성에 한함)  
라. 지도교수 추천서  
마. 관련 자격증(보건, 여학, 컴퓨터 등) 제출시 우대

### 6. 기타

가. 수험표는 면접 당일날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나 마감기간 이후 도착분은 접수불가 및 반송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다음 일정에 대하여 개별통보를 해드립니다.  
라. 전형결과와 개인별 E-mail 또는 휴대폰으로 통보되오니, 지원서 작성시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취업보호대상자는 관계법에 의해 우대합니다(증명서류 첨부 필수).  
바. 자세한 사항은 병원 홈페이지 www.dumc.or.kr 채용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서 자비를 바탕으로 행복한 간호문화를 이끌어 갈 신입간호사님을 모십니다.

